SERI 경제 포커스

2010. 4. 6. (제287호)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목차

FOCUS 1

1. 금융위기 이후 해외 외국인 고용 동향

2. 국내 외국인 수급 정책의 변화

3. 시사점

주간 금융지표 11

경제일지 12

경제통계 15

작 성: 최 홍 연구원
(hongchoi@seri.org)
02-3780-8187

삼성경제연구소

1. 금융위기 이후 해외 외국인 고용 동향

불황 여파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심화

□ 금융위기가 일찍 시작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내국인(Native-born)과 외국인(Foreign-born) 고용에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

- 금융위기가 일찍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 ·美國은 2004년 이후 내국인 실업률이 외국인 실업률을 계속 웃돌았으나 2009년 들어 역전
  - ·스페인의 외국인 실업률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9%p가량 급증

금융위기 이후 해외 주요국의 내국인/외국인 실업률 추이

(단위: %)

국가	금융위기 이전(2007.1/4분기)		금융위기 이후(2008.4/4분기)	
	內國人	外國人	內國人	外國人
美國	4.5	4.2	9.2	9.7
英國	5.2	6.9	6.1	7.4
스페인	7.5	11.5	12.5	20.3
헝가리	7.6	5.0	8.1	7.4

주: 美國의 금융위기 이후 집계 시점은 2009년 4/4분기

자료: OECD.(2009).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을 토대로 재구성

□ 경기불황이 내·외국인의 실업률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에 민감한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

- 외국인근로자들은 건설, 경공업, 호텔서비스업 등 숙련 기술이 필요치 않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많이 분포

- 특히 美國, 스페인, 아일랜드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이 심각한 불황을 맞아 외국인 실업이 급증
  - ·美國은 2008년 한 해에만 건설업에서 7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

금융위기 전후 주요 외국인 종사 업종의 고용 규모 변화

(단위: 개)

구분		건설업	제조업	호텔·식음료업
美國	2008. 1	7,053,000	13,619,000	11,137,300
	2009. 1	6,295,000	12,519,000	10,933,900
	증감률	-10.7%	-8.1%	-1.8%
英國	2007.12	2,246,000	3,195,000	7,015,000
	2008.12	2,286,000	3,087,000	6,975,000
	증감률	1.8%	-3.4%	-0.6%
스페인	2008.1/4분기	2,620,300	3,338,500	13,521,100
	2009.1/4분기	1,978,000	2,900,100	13,374,900
	증감률	-24.5%	-13.1%	-1.1%
아일랜드	2007.9-11월	279,300	292,700	134,000
	2008.9-11월	233,800	280,600	123,700
	증감률	-16.3%	-4.1%	-7.7%

자료: ILO.(2009).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Migrant Workers

- 그러나 英國과 같이 건설업의 경기 浮沈이 크지 않고 고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
  -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에 英國 내 외국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교육, 헬스케어 산업 등에서 오히려 10만 2,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분석

□ 불안정한 고용형태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들이 내국인보다 심각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구조적 배경

- 불황기에는 정규직보다 계약 해지가 용이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실직이 더 큰 규모로, 더 신속하게 발생[1)]
  - 영국(4.4%), 스페인(8.0%) 등 2008년 한 해 동안 유럽 주요국에서 6% 안팎의 비정규직 고용이 감소

-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높아, 불황 등 경기 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취약

1) Holmlund, B. & Storrie, D. (2002). Temporary Work in Turbulent Times: The Swedish Experience. *The Economic Journal*, 112(480), 245-269.

-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외국인 비정규직 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50% 이상 높게 나타남
- 그러나 전일제·시간제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비중이 국가별로 상이

유럽 주요국의 고용형태별 내국인/외국인 비중

(단위: %)

구분	英國		스페인		아일랜드		헝가리	
	內國人	外國人	內國人	外國人	內國人	外國人	內國人	外國人
비정규직	5.2	8.9	26.8	47.5	8.2	12.9	7.2	11.3
파트타임	24.7	20.4	11.5	13.7	18.1	15.1	3.8	5.2

주: '100-각 비중'은 정규직 및 풀타임 고용 비중(2007년 기준)
자료: Eurostat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고용보호주의도 외국인 고용불안을 가중

□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 외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주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

- 유럽 주요국들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非회원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쿼터(Quota)를 일제히 축소
  - 스페인은 2008년 1만 6,000명에 달하던 쿼터를 2009년 900명으로 축소
  - 이탈리아는 2008년 15만 명의 계절 쿼터를 2009년 8만 명으로 축소하고, EU 외 국가로부터의 비계절(Non-seasonal) 인력 쿼터를 폐지

- 인력 수입국(Destination Country)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력 송출국(Origin Country)에서도 외국인 유입 규제를 단행
  - 태국은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7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등록을 연기

- 외국인 비자발급 조건을 강화하여 신규 유입을 저지하는 조치도 병행
  - 영국은 EU 외 국가에서의 외국인 유입을 줄이기 위해 비자점수제(PBS)를 개정하고 고숙련 분야의 경우도 석사 이상 학력과 연 2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계약자로 비자발급 조건을 강화

- 직접 보상을 포함해 기존 외국인 인력의 본국 귀국을 독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등장하고 있으나,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 OECD 및 ILO 등은 母國의 경제적 상황이 이주국보다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편익을 고려해 잔류하는 인력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

'집으로 돌아가면 보너스를 드려요': 각국의 外國人 귀국 인센티브

□ 세계 각국은 외국인근로자의 신규 유입을 축소하는 동시에 現 거주 외국인들의 본국 귀국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

- 스페인 : 2008년 말 이민법을 개정, 실직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실업급여의 40%를 조기에 지급하고(60%는 귀국 후 입금) 3년 후 재입국을 허용
- 체코 : 2009년부터 외국인근로자가 조기 귀국을 희망할 경우, 여비를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500유로의 귀국보너스를 지급
- 일본 :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37만 명의 남미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본국 귀국 시 미화 3.000달러의 항공료와 2.000달러의 귀국보너스를 지급

- 반면, 대규모의 인력 송환에 대비해 귀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준비하는 송출국도 등장
  - 필리핀은 해외근로자복지연합(OWWA)을 설립하고 귀국 근로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기금(Expatriate Livelihood Support Fund)을 조성

□ 불황으로 위축된 사회정서도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

-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견제 여론이 형성
  - 2009년 *Financial Times*의 여론조사에서 영국 78%, 스페인 71%, 독일 67%, 프랑스 51%의 응답자가 "무직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찬성[2)]

- 송출국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노동총연합회(MTUC)가 정부에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근로자 7만 명에 대한 비자 취소를 요구

[2)] Jobless migrants should leave, say many in EU.(2009.3.16). *Financial Times*, p. 9.

2. 국내 외국인 수급 정책의 변화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총 55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2% 수준

□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55만 명[3)]

- 한국 총 경제활동인구(2,465만 명)의 2.2%, 국내 거주 외국인(117만 명)의 47%를 점유
  - ·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들어온 단순기능인력이 51만 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93%를 점유
  - · 전문인력은 4만 1,000명 규모로 회화지도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

-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5.1%)이 가장 많고 베트남(9.16%), 필리핀(5.23%), 태국(4.68%), 인도네시아(4.38%) 순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 체류자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총계			551,858	503,829	48,029
전문인력	소계		40,698	38,497	2,201
	교수(E-1)		2,056	2,051	5
	회화지도(E-2)		22,642	22,547	95
	연구(E-3)		2,066	2,056	10
	기술지도(E-4)		197	192	5
	전문직업(E-5)		536	518	18
	예술흥행(E-6)		4,305	2,961	1,344
	특정활동(E-7)		8,896	8,172	724
단순인력	소계		511,160	465,332	45,828
	비전문 취업	합법화(E-9-1)	17,806	12	17,794
		고용허가(E-9-2~7)	169,849	158,183	11,666
		고용특례(E-9-A~K)	708	3	705
	연수취업(E-8)		11,307	51	11,256
	선원취업(E-10)		5,207	4,078	1,129
	방문취업(H-2)		306,283	303,005	3,278

주: 2009년 12월 기준이며, ( )는 비자 구분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자격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집계 기준으로 단기취업(C-4) 및 산업연수(D-3) 인력을 제외한 수치

한국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

□ 금융위기 이후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3년에 도입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대신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
  - ·산업연수생제도는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폐해와 사업주의 근로자 인권 침해 소지 등 여러 문제점을 노정

-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직종과 고용 목적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심사를 거쳐 허가하는 인력도입제도로 유럽과 북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
  -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으나 사업자의 수요에 기초한 방식으로 초과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보유

-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17만 명 수준으로,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연간 유입 쿼터를 대폭 축소
  - ·7.2만 명(2008년) → 1.7만 명(2009년) → 2.4만 명(2010년)

□ 해외동포 입국 쿼터를 동결하고 특정 업종에서의 취업 규제를 강화

-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있어서 내국인과 고용 경쟁이 발생하는 계층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가 아닌 해외동포
  - ·중국 및 러시아 지역에 거주했던 재외동포들로 방문취업비자(H-2)를 통해 입국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4)]

-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방문취업 체류 총량제'를 시행하고 2010년 해외동포 쿼터는 現 체류자 규모(30만 명)로 동결
  - ·친족초청 가능 인원도 2009년부터 연 1명으로 축소

---

4) 국내 연고가 있는 중국 및 러시아 동포들이 방문동거비자(H-1)로 입국 후 비전문취업비자(E-9)로 전환, 3년간 취업을 허용했던 특례고용허가제가 해외동포의 지위 개선을 위해 2007년 방문취업제도(H-2)로 전환됨. 방문취업자는 입국 후 3년간 바로 취업이 가능하며 국내 연고가 없는 동포들도 적정 쿼터 내에서 한국어시험을 거쳐 입국이 가능

-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해외동포들의 건설업 취업 규제를 강화
  - 2009년부터 해외동포들이 건설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등록과 교육을 거쳐 취업증명서 취득을 의무화하는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를 시행
  - 이와 함께 2010년 해외동포의 건설업 취업 쿼터를 6만 5,000명으로 축소해 제조업의 인력수급 개선을 도모[5)]

□ 내국인 고용 진작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보상을 확대

- 2008년 말 노동부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중소제조업체가 고용인력을 내국인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
  -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수 증가로 간주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금을 추가로 지급
  - 아울러 1명의 고용 전환에 대해 1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

규제 강화로 공급은 줄었으나 수요는 상존

□ 각종 규제로 2008년 2/4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세가 둔화

-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이후 54~55만 명 규모에서 정체
  - 47.6만 명(2007.4/4) → 54.9만 명(2008.4/4) → 55.2만 명(2009.4/4)

- 이는 쿼터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순기능인력 유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
  - 금융위기 이후 고용허가제 입국자 증가율은 연 1~2% 수준으로 하락
  - 방문취업비자 쿼터가 동결되고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동포 규모는 2009년 2/4분기 이후 오히려 감소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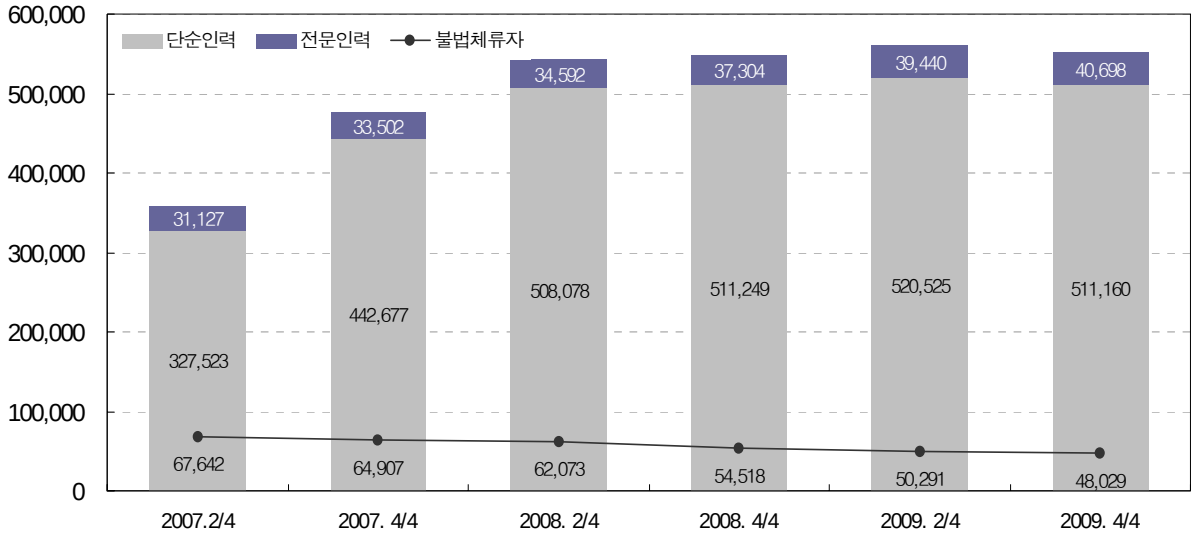
- 회화지도 인력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 특정활동 등 E1~E7 비자로 입국하는 전문인력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
  - 전문인력 추이 : 3.4만 명(2007) → 3.7만 명(2008) → 4.1만 명(2009)

---

5)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는 해외동포 규모가 1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는 쿼터를 축소할 경우, 약 3-4만 명이 구인난에 처한 영세제조업이나 타 업종으로 이직할 것으로 전망

국내 외국인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명)



자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9). "자격별 외국인근로자 현황".

-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둔화로 2005년 이후 연 15% 이상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1% 미만으로 급락
  - 외국인 증가율 추이 : 21%('06) → 17%('07) → 8%('08) → 0.8%('09)

□ 각종 규제로 외국인근로자 유입 규모는 감소했으나 중소제조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는 여전

- 2009년 배정된 1만 7,000명의 고용허가제 쿼터가 2/4분기 전에 소진
  - 영세제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자 2010년 고용허가제 입국 쿼터를 2만 4000명으로 다소 상향 조정

- 최근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93%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6)]

-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이번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 축소를 단행하면서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우선 해고했다'는 분석도 제기[7)]

---

6) 곽태열.(2009). "경남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 분석을 통한 노동시장 활력화 방안" (Issue Paper 2009-43). 경남발전연구원.

7) "기업들, 외국인보다 내국인 먼저 해고." (2010.4.2). 『연합뉴스』

3. 시사점

경기침체 시 외국인 수급 정책은 '정교함'과 '유연성'이 필요

□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시 국내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 국내 노동시장은 해외에 비해 노동 유연성과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주지
  - 회원국 간 인적자원 이동이 자유로운 EU는 非회원국으로부터의 인력유입 규제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용이

-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가 지속되어 영세업체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시 발생할 인력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

- 상시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연간 쿼터를 가변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업종별 현실에 맞는 정교한 수급정책이 필요

□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

- 고용허가제 운영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이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 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이 있으나 브로커 횡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無연고 해외동포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
  - 한국어 시험을 둘러싸고 새로운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접수방법과 장소 등이 현지 동포들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 최근 외국인 재고용 조건을 완화하고 사업장 변경 시 유예기간을 연장(2개월→3개월)한 것은 숙련인력 활용도 제고와 수급 유연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사회통합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외국인 정책이 요구

□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고용보호주의가 장기적으로 입안된 외국인 정책을 굴절시키지 않도록 유의

-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국인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
  - ·유엔은 한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

-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향후 수급 유연성 회복은 물론 장기적 사회통합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 OECD는 덴마크와 같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불황에도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 권고[8)]
  -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하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고용환경 구축에 주력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
  - ·덴마크 실업률 추이('07.1/1→'08.4/4, %): (內) 4.0→3.3 (外) 9.8→6.8

□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

- 불황기에는 반외국인 정서(Xenophobia)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쉬우며, 한편 외국인들의 우발적 일탈도 빈번하게 발생
  - ·외국인근로자 차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인종 갈등 소지를 예방

- 불황으로 실직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지원하고, 귀국하는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재입국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
  -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수급의 질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 경력이 있는 숙련 근로자들의 재고용이 불가피

<以上>

8) OECD (2004). Migration and Integration of Immigrants in Denmark.(Working Paper No.386).

주간 금융지표

금리 : 3월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 하회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우려 완화로 하락

	3.29	3.30	3.31	4.01	4.02
회사채(AA-)	4.91	4.91	4.89	4.84	4.84
회사채(BBB-)	10.95	10.95	10.93	10.88	10.88
국고채(3년물)	3.92	3.90	3.89	3.84	3.84
콜금리	1.99	1.99	2.01	2.00	2.00

자료 : 금융투자협회. 한국자금중개.

환율 : 달러는 엔화 대비 강세, 원화 및 유로화 대비 약세

	3.29	3.30	3.31	4.01	4.02
원/달러	1,135.5	1,130.1	1,131.3	1,126.4	1,126.0
엔/달러	92.47	92.80	93.47	93.86	94.61
달러/유로	1.3479	1.3413	1.3512	1.3583	1.3504
원/100엔	1,227.97	1,217.78	1,210.40	1,200.09	1,190.15

자료 : 한국은행 ECOD DB. Thomson Reuters Datastream.

주가 : 글로벌 경제회복 기대감 및 자동차, IT업종 실적개선 예상 등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지속으로 상승

구 분		3.29	3.30	3.31	4.01	4.02
거래소	KOSPI(p)	1,691.99	1,700.19	1,692.85	1,719.17	1,723.49
	거래량(만주)	33,961	32,104	32,832	29,699	35,509
	시가총액(조원)	904	908	904	919	921
	외국인순매수(억원)	3,265	3,551	1,260	4,475	6,226
코스닥지수(P)		518.06	518.05	515.74	519.19	514.95

자료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주간 경제일지

(4. 5 ~ 4. 9)

04. 05. (월) ㆍ국내 보도자료: 3월 IT산업 수출입동향(지식경제부) 3월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동향공표(노동부) ㆍ해외 보도자료: 미국, 3월 ISM 비제조업지수(구매관리자협회)
04. 06. (화) ㆍ국내 보도자료: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한국은행) ㆍ해외 보도자료: 일본, 2월 경기선행지수(내각부) 일본, 2월 경기동행지수(내각부)
04. 07. (수) ㆍ해외 보도자료: 유로지역, 4/4분기 실질 GDP(확정치, EU통계청) 유로지역, 2월 생산자물가(EU통계청)
04. 08. (목) ㆍ국내 보도자료: 2010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한국은행) 2010년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 동향(한국은행) 최근 경제동향(기획재정부) ㆍ해외 보도자료: 유로지역, 2월 소매판매(EU통계청) 유로지역, ECB기준금리(ECB) 일본, 2월 민간기계수주(내각부)
04. 09. (금) ㆍ국내 보도자료: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한국은행) 2010년 3월 생산자물가 동향(한국은행)

주간 해외 경제일지
(3. 29 ~ 4. 2)

미 주

3. 29. (월) ・미국: 작년 4/4분기 GDP 전기대비 연률 5.6% 성장, 상무부
3. 30. (화) ・미국: 3월 소비자신뢰지수 73.6으로 전월대비 보합, Reuters/미시간대학
3. 31. (수) ・미국: 2월 소비자지출 전월대비 0.3% 증가, 상무부
4. 1. (목) ・미국: 20대도시 1월 주택가격 전월대비 0.3% 상승, S&P/Case-Shiller
4. 2. (금) ・미국: 2월 공장주문 전월대비 0.6% 증가, 상무부

유 럽

3. 29. (월) ・유로지역: 3월 경기신뢰지수 전월대비 1.8p 상승한 97.7, EU 집행위원회
3. 30. (화) ・그리스: 3월 경기신뢰지수 전월대비 2.8p 하락한 69.6, EU 집행위원회
3. 31. (수) ・유로지역: 3월 소매판매지수 전월대비 2.3p 상승한 46.9, Markit Economics
4. 1. (목) ・유로지역: 3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5% 상승, Eurostat
4. 2. (금) ・유로지역: 2월 실업률 전월대비 0.1%p 상승한 10%, Eurostat

일 본

3. 29. (월) · 일본: 신선식품을 제외한 2월 CPI 전년동월대비 1.2% 감소, 통계청
3. 30. (화) · 일본: 2월 소매판매 1997년이래 최대 증가율을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4.2% 증가, 재무성
3. 31. (수) · 일본: 1/4분기 중소기업 경기판단지수 전기대비 2.2p 증가한 -34.2, 경제산업성
4. 1. (목) · 일본: 2월 산업생산지수 전월대비 0.9% 감소한 91.3, 경제산업성
4. 2. (금) · 일본: 2월 실업률 전월과 같은 4.9%, 총무성

동 남 아

3. 29. (월) · 태국: 수출증가 및 투자 확대로 경제성장률전망 4.5%대로 상향 조정, FPO
3. 30. (화) · 홍콩: 2월 소매판매액 269억 홍콩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5.8% 증가, 통계처
3. 31. (수) · 인도네시아: 3월 인플레이션 목표치(5.5~5.7%) 하회하는 3.43%로 안정세 지속, 통계국
4. 1. (목) · 홍콩: 2010년 1/4분기 집값 전기대비 7.5% 상승, 센터라인부동산
4. 2. (금) · 베트남: 3월 CPI 전월대비 1%p 상승한 9.46%로 1년 中 최고치 기록, HSBC

◆ 거시지표 ◆

	경제 성장률	소비자 태도지수	물가		고용		금융동향					
			생산자	소비자	실업률	임금 (제조업, 실질)	통화(평잔기준)		회사채수익률 (평균)	어음부도율		주가지수
							M2	M3		전국	서울	
	전년동기대비(%)	포인트 (p)	전년동월대비(%)		기간 중 평균(%)	전년동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	%	기말기준
2004	4.6	43.3	6.1	3.6	3.7	9.5	4.6	6.1	4.7	0.06	0.04	895.9
2005	4.0	46.9	2.1	2.8	3.7	8.1	6.9	7.0	4.7	0.04	0.03	1,379.4
2006	5.2	47.6	0.9	2.2	3.5	5.7	8.3	7.9	5.2	0.02	0.02	1,434.5
2007	5.1	49.4	1.4	2.5	3.2	6.6	11.2	10.2	5.7	0.02	0.01	1,897.1
2008	2.2	43.8	8.6	4.7	3.2	0.6	14.3	11.9	7.0	0.03	0.02	1,124.5
2009. 3			3.5	3.9	4.0		11.1	8.4	6.14	0.05	0.02	1,206.3
4			1.5	3.6	3.8		10.6	7.7	5.68	0.03	0.02	1,369.4
5	-2.2	48.9	-1.3	2.7	3.8	-2.0	9.9	7.3	5.16	0.04	0.03	1,395.9
6			-3.1	2.0	3.9		9.6	7.0	5.21	0.02	0.01	1,390.1
7			-3.8	1.6	3.7		9.7	7.7	5.46	0.02	0.01	1,557.3
8	0.9	52.6	-3.0	2.2	3.7	-1.4	10.0	8.0	5.74	0.02	0.01	1,591.9
9			-2.6	2.2	3.4		10.0	7.7	5.58	0.02	0.01	1,673.1
10			-3.1	2.0	3.2		10.5	7.8	5.60	0.02	0.02	1,580.7
11	6.0	53.2	-0.4	2.4	3.3	3.6	9.7	7.6	5.43	0.04	0.03	1,555.6
12			1.8	2.8	3.5		9.3	8.1	5.35	0.03	0.03	1,682.8
2010. 1			2.8	3.1	5.0		9.3	8.1	5.40	0.03	0.03	1,602.4
2	..	51.9	2.4	2.7	4.9	..	..	..	5.32	0.03	0.03	1,594.6
3	..		..	2.3	..		..	..	5.02	..	..	1,692.9

주: 회사채수익률은 AA- 기준으로 2000년 10월 이전은 A+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기준임

◆ 산업활동 ◆

	경기종합지수		소매액 지수			국내기계수주	국내건설수주	산업활동				
	선행지수	동행순환변동치	총지수	백화점	할인점			평균가동률	제조업생산			
									전체	반도체	자동차	선박
	2005=100 (평균)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2004	95.8	100.3	1.1	-4.8	5.3	6.3	-3.9	80.1	10.8	54.7	10.1	13.6
2005	100.0	99.4	4.2	3.0	7.9	-2.8	7.3	79.7	6.3	28.9	7.5	8.6
2006	105.2	99.9	4.0	3.4	7.9	17.4	9.0	80.0	8.7	55.7	7.6	6.8
2007	111.9	100.6	5.1	0.8	8.5	20.6	23.6	80.1	7.1	19.8	6.1	8.8
2008	113.1	99.3	1.0	0.5	2.2	-12.8	-9.0	77.2	3.0	5.1	-3.4	24.8
2009. 2	112.2	94.2	-6.0	-5.9	-19.2	-27.5	-19.0	67.7	-10.5	-24.0	-19.3	27.7
3	113.5	94.9	-5.2	-1.7	-5.2	-25.5	-14.9	70.3	-11.3	-21.3	-26.5	31.6
4	115.4	96.1	-4.2	-1.2	-4.2	-27.4	-10.7	72.4	-8.8	-12.7	-24.3	13.2
5	117.6	96.5	1.7	2.2	0.2	-25.4	-17.9	73.6	-9.6	-13.2	-22.7	11.9
6	120.3	97.8	7.6	0.3	-4.9	-2.0	22.7	76.6	-1.3	2.6	-11.7	19.9
7	122.1	98.4	1.2	1.0	-5.5	6.1	-1.8	78.7	0.7	13.1	20.7	15.8
8	123.2	98.7	0.5	4.7	-2.4	-19.6	-27.0	77.7	1.0	21.0	-2.3	11.4
9	123.9	98.9	6.7	6.4	-2.1	26.5	55.3	79.9	11.5	23.3	34.9	31.7
10	124.7	98.9	9.8	9.4	5.3	-7.9	28.8	77.3	0.5	36.2	-14.2	-3.5
11	126.1	99.0	9.7	3.2	-1.3	56.2	78.8	78.2	18.8	72.3	15.4	-0.1
12	127.0	98.9	12.7	14.7	5.4	21.2	-19.6	79.6	36.0	109.0	58.8	-3.3
2010. 1	127.4	99.3	6.8	6.5	-9.3	11.2	17.1	78.9	38.9	66.7	83.0	10.0
2	127.1	100.0	12.9	17.3	27.9	-3.1	-6.7	80.5	19.8	67.3	32.5	-11.8

주: 반도체는 2006년 7월로 통계청 DB내 '반도체 및 기타 전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대외거래 ◆

	전체 수출입(통관기준)				주요 지역별 수출								순상품 교역지수 (증감률)
	수출		수입		對美		對아시아		對中		對EU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004	253,845	31.0	224,463	25.5	42,849	25.2	129,525	30.4	49,763	41.7	37,830	52.0	-4.1
2005	284,419	12.0	261,238	16.4	41,343	-3.5	146,914	13.4	61,915	24.4	43,659	15.4	-7.4
2006	325,465	14.4	309,383	18.4	43,184	4.5	168,447	14.7	69,459	12.2	48,450	11.0	-6.6
2007	371,489	14.1	356,846	15.3	45,766	6.0	188,790	12.1	81,985	18.0	55,982	15.5	-2.5
2008	422,007	13.6	435,275	22.0	46,377	1.3	214,051	13.4	91,389	11.5	58,375	4.3	-13.8
2009. 2	25,397	-18.5	22,598	-30.7	2,744	-18.3	12,753	-20.2	5,561	-13.6	3,164	-26.3	7.3
3	27,891	-22.5	23,921	-35.5	2,936	-28.2	14,050	-24.5	6,474	-22.4	3,956	-28.0	4.7
4	30,327	-19.9	24,874	-35.0	3,270	-22.8	14,947	-24.4	6,987	-19.2	4,333	-19.1	8.0
5	27,824	-29.4	23,407	-39.5	2,943	-24.0	14,800	-26.0	6,636	-25.6	3,689	-32.1	13.1
6	32,210	-13.6	25,689	-32.1	3,279	-22.2	16,135	-19.0	7,310	-16.1	4,002	-8.8	12.8
7	31,908	-22.1	27,680	-35.6	3,287	-20.7	17,267	-20.9	7,804	-12.9	3,505	-32.9	9.1
8	28,950	-20.9	27,408	-32.2	3,144	-11.4	16,227	-15.0	7,657	-10.3	3,500	-28.2	13.9
9	33,922	-9.4	29,757	-24.7	3,387	-11.7	18,146	-2.0	8,363	3.4	3,776	-27.4	12.7
10	33,970	-8.5	30,397	-15.8	3,190	-28.1	18.048	0.2	8,178	9.5	4,664	-12.4	18.0
11	33,992	17.9	29,535	2.4	3,486	-0.4	18,354	37.1	8,163	54.1	4,356	3.3	15.5
12	36,010	32.8	32,920	23.9	3,358	-3.8	19,588	57.7	9,104	93.1	4,605	40.9	11.0
2010. 1	30,817	45.8	31,452	26.3	3,058	16.4	17,950	71.8	8,852	98.2	3,413	11.6	0.6
2	33,138	30.5	31,062	37.5	3,414	24.4	17,806	39.6	7,957	43.1	3,411	7.8	..

◆ 국제수지 및 외환 ◆

	경상수지				자본수지			외환 보유액	환율		총대외지불부담	
	경상 수지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자본 수지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원/달러	원/엔	총외채	순채권
	백만 달러 (In Million dollars)								기말기준		억 달러(기말기준)	
2004	28,174	37,569	-8,046	1,083	7,599	4,588	6,599	199,066	1,043.8	1,012.07	1,723	1,167
2005	14,981	32,683	-13,658	-1,563	4,757	2,010	-3,518	210,391	1,013.0	859.90	1,879	1,292
2006	5,385	27,905	-18,961	534	17,972	-4,540	-23,230	238,956	929.6	781.83	2,601	1,208
2007	5,876	28,168	-19,768	1,003	7,128	-13,836	-26,058	262,224	938.2	833.33	3,832	374
2008	-5,776	5,669	-16,671	5,107	-50,933	-10,595	-15,368	201,223	1,257.5	1,393.89	3,811	-326
2009. 3	6,645	6,971	-675	-185	-2,838	-721	-2,308	206,340	1,377.1	1,414.80		
4	4,274	6,105	-1,173	-803	2,193	112	7,133	212,478	1,348.0	1,382.92		
5	3,443	4,872	-1,524	390	6,708	-575	4,264	226,766	1,272.9	1,314.10	3,786	-64
6	5,381	6,599	-1,526	706	-219	290	5,344	231,735	1,284.7	1,336.28		
7	4,420	6,115	-1,898	511	2,201	-1,324	7,940	237,510	1,240.5	1,299.16		
8	1,922	3,320	-1,803	618	5,297	-276	4,064	245,459	1,244.9	1,332.80	3,974	30
9	4,054	5,269	-1,633	562	6,902	-538	7,911	254,247	1,188.7	1,318.80		
10	4,757	5,675	-1,313	559	1,583	-509	6,131	264,187	1,200.6	1,312.63		
11	4,278	5,842	-1,663	390	1,544	-2,835	3,389	270,892	1,167.4	1,348.27	4,019	152
12	1,522	4,023	-2,799	699	1,639	-1,367	975	269,995	1,167.6	1,282.82		
2010. 1	-631	1,376	-2,164	465	4,467	-1,680	152	273,694	1,156.5	1,287.00		
2	158	1,532	-1,778	565	251	-764	3,126	270,660	1,158.4	1,299.31	..	..
3	..	..	..	..	..	..	..	272,331	1,130.8	1,217.68		

《 주요국 통계 》

〔미국〕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100
2004	3.6	2.5	2.7	5.5	8,075	14,771	-6,250	2.25	10,783.0
2005	2.9	3.3	3.4	5.1	8,946	16,818	-7,290	4.25	10,717.5
2006	2.8	2.2	3.2	4.6	10,231	18,614	-7,881	5.25	12,463.2
2007	2.0	1.7	2.9	4.6	11,485	19,679	-7,312	4.25	13,264.8
2008	1.1	-1.7	3.8	5.8	12,914	21,122	-6,733	0.25	8,776.4

주: 1) 전년동기대비, 2) 연방기금금리, 3) 다우지수

〔일본〕

	성장률	산업생산[1]	소비자물가[2]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3]	주가(기말)[4]
	%	%	%	%	백억엔	백억엔	백억엔	(%)	
2004	2.7	5.6	0.0	4.7	6,117	4,922	1,019	0	11,489
2005	1.9	1.1	-0.3	4.4	6,566	5,695	1,195	0	16,111
2006	2.4	4.6	0.3	4.1	7,525	6,734	8,71	0.25	17,226
2007	2.1	2.9	0.0	3.9	8,393	7,314	7,90	0.50	15,308
2008	-0.6	-3.2	1.4	4.0	8,105	7,889	1,080	0.10	8,860

주: 1) 광공업생산, 2) 전년동기비, 3) overnight call, 4) Nikkei 225

〔유로지역〕

	성장률	산업생산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1	2.3	2.1	9.0	11,197	10,553	580	2.00	2,951.2
2005	1.7	4.1	2.2	9.0	12,091	12,041	138	2.25	3,578.9
2006	2.9	5.1	2.2	8.3	13,521	13,715	0	3.50	4,119.9
2007	2.6	2.8	2.1	7.5	15,059	14,900	306	4.00	4,399.7
2008	0.8	1.7	3.3	7.6	15,617	15,929	-686	2.5	2,447.6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공개시장조작금리(기말), 3) 다우존스 Euro Stoxx 50지수

〔독일〕

	성장률(실질)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1.2	4.2	1.7	10.6	7,261	5,714	1,029	1.98	4,256.1
2005	0.8	3.0	1.6	11.7	7,835	6,259	1,147	2.32	5,408.3
2006	3.0	5.3	1.6	10.8	8,941	7,322	1,509	3.48	6,596.9
2007	2.5	5.8	2.3	9.0	9,707	7,717	1,913	3.66	8,067.3
2008	1.3	0.6	2.6	7.8	9,902	8,135	1,649	0.86	4,810.2

주: 1) 전년동기대비, 2) 3개월만기국채수익률, 3) DAX 지수(1987.12.30=1,000)

〔영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파운드	억파운드	억파운드	%	
2004	2.8	0.9	1.3	4.8	1,909	2,518	-252	4.75	4,814.3
2005	2.1	-1.5	2.0	4.8	2,116	2,801	-327	4.50	5,618.8
2006	2.8	0.6	2.3	5.4	2,436	3,199	-450	5.00	6,220.8
2007	3.0	0.5	2.3	5.4	2,208	3,106	-403	5.50	6,456.9
2008	0.7	-2.8	3.6	5.6	2,510	3,439	-245	2.00	4,392.7

주: 1) 전년동기대비, 2) 영란은행 RP 금리, 3) FTSE 100지수(1984.1.3=1,000)

〔프랑스〕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유로	억유로	억유로	%	
2004	2.5	2.1	2.1	9.3	3,385	3,441	95	2.04	3,821.2
2005	1.9	0.2	1.7	9.3	3,554	3,790	-111	2.36	4,715.2
2006	2.4	1.0	1.7	9.2	3,884	4,177	-99	3.43	5,541.8
2007	2.1	1.5	1.5	8.4	4,031	4,431	-198	3.76	5,614.1
2008	0.7	-2.3	2.8	7.8	4,120	4,654	-391	1.66	3,218.0

주: 1) 전년동기대비, 2) 단기국채수익률, 3) CAC 40 Index(1987. 12. 31=1,000)

〔중국〕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10.1	16.7	3.9	4.2	5,934	5,614	320	5.58	1,266.50
2005	10.4	16.4	1.8	4.2	7,620	6,601	1,019	5.58	1,161.06
2006	11.1	16.6	1.5	4.1	9,691	7,916	1,775	6.12	2,675.47
2007	13.0	18.5	4.8	4.0	12,180	9,558	2,627	7.47	5,261.56
2008	9.0	12.9	5.9	4.2	14,285	11,331	2,955	5.31	1820.81

주: 1) 전년동기대비, 2) 1년만기 대출금리, 3) 상해 종합주가지수

〔대만〕

	성장률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1]	실업률	수출	수입	경상수지	금리(기말)[2]	주가(기말)[3]
	%	%	%	%	억달러	억달러	억달러	(%)	
2004	6.2	9.3	1.6	4.4	1,824	1,688	136	1.75	6,139.69
2005	4.2	3.8	2.3	4.1	1,984	1,826	158	2.25	6,548.34
2006	4.8	4.7	0.6	3.9	2,240	2,027	213	2.75	7,823.70
2007	5.7	7.8	1.8	3.9	2,467	2,193	274	3.38	8,506.28
2008	0.1	-2.0	3.5	4.1	2,557	2,408	148	2.00	4591.22

주: 1) 전년동기대비, 2) 재할인율, 3) 가권지수